

제목 : I SEE YOU

본문 :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가족, 친구,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첫사랑이 떠올랐어요. 처음 손잡은 날도 기억이 나요. 너무 떨려서 하늘만 봤다니까요. 또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던지 데이트를 위해 옷도 열 벌은 갈아입어보고, 열심히 편지도 써봤어요. 여러분도 머리에 여러 사람들이 스쳐지나가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린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구에 와서 장미꽃 무리들을 만났는데 어린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 내가 내 소혹성에 두고 온 장미가 나한테는 소중해. 나는 그 장미에게 물을 주었고,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었어. 그리고 투덜거릴 때에는 들어주었고 괴롭히는 벌레도 잡아 주었어. 나는 정성과 노력을 쏟았어. 그건 내 장미이니까.” 자, 지금 어린 왕자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은 그것의 조건, 즉 다른 것보다 더 잘났거나 최고로 멋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게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은 ‘소중한 만남’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은 집중하고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흘러가는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만들어봅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표준새번역)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잠시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약 60조개의 세포들과 200개가 넘는 뼈들, 그리고 여러 장기들이 있다고 해요. 머리카락은 셀 수도 없죠. 모든 인간의 구성은 다 똑같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73억 인구 중 단 한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고민 없이 똑딱 똑딱 인간 한 명을 만드시고 복제 하듯이 기성품으로 찍어내신 것이 아니예요.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 각 사람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집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과 직접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것,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만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표준새번역)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 그냥 문을 여시거나, 문을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신대요. 사랑의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의 사랑을 시험하고, 이용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차피 용서해주실 테니, 회개의 시늉만이라도 하자고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성전에 가면서도 주님께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분의 눈 한번을 안 마주치고,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친구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올 때에는 예배드렸으니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 분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렇게 정성을 쏟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분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결같은 섬겨줄 때, 감사함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해주시는 것도, 아버지가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가끔은 감사해 하지만, 평소에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찬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으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없애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거나, 혹은 죄 지을 때마다 한 명씩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죠. 굳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 없이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IS의 존재에 대해 알죠? 만약 우리가 인질로 끌려갔는데 함께 간 우리 중 한 명의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화형을 당하고, 우리는 풀려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는 그 친구의 가족,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겠어요? 그리고 평생 그 친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봐요.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13장 34-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리고 그 분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 분과 더불어 먹으며 동행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몰래 술을 마시거나, 거짓말하고pc방 가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는 폭력은 죄라고 여기면서, 눈빛으로, 말로, 혹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동생을 무시하고 놀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신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 기억합시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 분께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분의 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대하는 것, 존중하기는 것, 소중하게 만나는 것이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봤어요? 아바타의 주제가 노래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 노래의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I SEE YOU로 정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치환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가사를 읽어볼게요.

“당신을 뵙니다. 어둠 속의 나의 빛은 새 생명의 희망을 들이킵니다. 이제 난 당신을 통해 살고 당신은 날 통해 삽니다. 황홀경이죠. 이 꿈이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뵙니다. 이 삶을 통해 살며 높이 날죠. 당신의 삶은 천국으로의 길을 밝혀주죠. 그러므로 내 삶을 희생으로 바칩니다. 난 당신의 사랑을 통해 살죠.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줬으니까요. 모든 것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절대로 묘사할 수 없는 당신의 말들을 나의 감각들로 느낍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 희망을 드립니다. 제가 복종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난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뵙니다. 이 삶을 통해 살며 높이 나라죠. 내 심장이 멎고 내 영혼이 속박되는 그 날에 당신이 내게 알려준 그 세계로 갑니다. 사랑의 모든 색과 영원한 삶으로 나는 당신을 뵙니다.”